

IFLA FRAD 모형이 관련 표준에 미친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FRAD Model on the Related Standards

안영희(Young-Hee Ahn)**

이성숙(Sung-Sook Lee)***

초 록

이 연구는 IFLA에서 연구되고 있는 '전거데이터의 기능상의 요건'(FRAD)을 FRAR에서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FRAD가 RDA와 MARC21에 끼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FRAD와 관련 규칙과의 관계를 정립하였고, 전거제어를 위한 IFLA의 활동에 비추어 국내 전거제어 관련 목록 규칙과 포맷, 주요 전거DB구축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국내 전거제어 표준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접근점제어방식, 적용범위 확대, 개체-관계 모형과 같은 새로운 접근방식의 도입, 국가서지작성기관의 역할 강화 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결과는 전거제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early understand 'Functional Requisite of Authority Data(FRAD)' being studied by IFLA focused on aspect of change from FRAR. In addition, it has established relationship between FRAD and concerned rules by analyzing effect of FRAD on RDA and MARC21 and reviewed cataloguing rules, format and situations of major authority DB implementations concerned about domestic authority controls in reflection of IFLA's activities for authority control. Based on the analysis, it has looked into considerations for domestic authority controls standards such as access control methods, expansion of application scope, introduction of new approaches such as entity-relationship model, reinforcement of roles for national bibliographic agency. These study results would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authority control.

키워드: 서지데이터, 접근점제어, 전거제어, 전거데이터, 목록규칙
IFLA FRAD, RDA, MARC21, KCR, access control, authority control
authority data, cataloguing rules

* 이 논문은 2008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2008년 8월 21일, 상명대학교)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백석대학교 학술정보관 사서(yha@bu.ac.kr) (제1저자)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infolee@cn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09년 2월 17일 ■ 최초심사일자: 2009년 2월 20일 ■ 게재확정일자: 2009년 2월 28일
■ 정보관리학회지, 26(1): 279-303, 2009. [DOI:10.3743/KOSIM.2009.26.1.279]

1. 서론

인터넷 웹상에 있는 정보자원의 검색 결과에 대한 정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의 매체와는 상관없이 관련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한곳에 모아 탐색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목록 작성자는 이용자의 행태를 파악해서 관련 문헌을 한곳에 모아 검색과 탐색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목록에서 전거데이터를 공유해 원하는 정보를 매체, 유형 등에 관계없이 얻을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정확률과 재현율을 높이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인터넷 웹상에서 검색된 과잉된 결과물에 대한 검색율을 높이기 위해 전거제어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전거제어는 표목 또는 접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름, 서명, 주제명의 전거형(authoritative form)이 일관성 있게 사용되고 유지되도록 모든 가능한 표현을 찾아내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전거형을 결정하고 상호간에 연결하여 전거데이터와 서지데이터의 통일성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지원 2005). 즉, 전거제어는 목록상의 표목 및 접근점을 일관성 있게 사용하고 다양한 형식을 연계함으로써 자료의 검색과 집중이라는 목록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여왔다.

도서관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전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규칙과 포맷을 마련해 오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전거협약을 위한 IFLA의 활동이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전 세계의 모든 서지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1974년에 발행된 IFLA의 서지제어 권고안, 1984년

GARE(Guidelines for Authority Records and Entries)와 그 개정판인 GARR(Guidelines for Authority Records and Reference), 국제표준 전거데이터번호(International Standards Authority Data Number: ISADN), 국제표준저자번호(International Author Number: ISAN), 자원 공유 측면에서의 최소한의 핵심데이터 요소(Mandatory Data Elements for Internationally Shared Resource Authority Records)의 제안 등을 들 수 있다(이지원 2005; 김태수 2004).

최근 들어 IFLA에서 제안된 '전거데이터의 기능상의 요건'(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 이하 FRAD)(2nd 초안)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IFLA에서는 서지레코드와 관련된 관계유형에 기반한 FRBR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FRBR에는 전거데이터는 포함되고 있지 않아 IFLA의 서지제어분과와 IFLA의 국제서지제어 및 국제 MARC 프로그램에 의해 결성된 FRANAR 실무위원회에서는 FRBR개념을 전거레코드로 확장한 '전거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Records, 이하 FRAR이라 부름)(초안)'을 2005년 6월에 발표하여 전거제어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IFLA의 FRANAR 실무위원회는 원래 전거데이터의 표준번호도 다룰 예정이었으나 국제적 환경 변화 때문에 FRAR이 완성될 때까지 식별기호(identifier)의 문제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005년 발표된 초안은 FRANAR에서 FRAR로 모형 명칭이 변경되었다. IFLA에서는 FRAR이 발표된 이후 전 세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작업을 거친 후 2007년 4월에는 FRAR에서

명칭을 변경한 FRAD를 발표하였다. FRAD는 최종본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FRAD는 이미 국제목록원칙규범(안)과 RDA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각 국의 목록규칙과 포맷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 선거제어의 현황을 살펴보면, 선거제어를 위한 관련 규칙이 미비한 실정이다. KCR 4판에서는 기본표목과 통일표제의 개념을 배제하고,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에 대해서 선거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후속 연구가 미비하여 선거를 위한 규칙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KCR 2판에 수록된 '표목형식'이 거의 유일하지만, 거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글맞춤법이나 외래어표기법 등과 많은 차이점이 있어 그대로 적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규칙 미비에 따라 KORMARC(선거통제용) 포맷도 불안정한 상태이며, 현재 구축되어 있는 선거레코드에 있어서도 호환성의 문제가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도서관에서 구축한 선거데이터의 구축 건수는 부족한 실정이다.

KCR 4판 제정 이후 국내 선거제어 관련 선행 연구로는 새로운 선거제어 방식인 접근점제어에 관한 연구(김태수 2004, 박하영 2004, 이지원 2005), 공공도서관에서의 선거제어에 관한 연구(심경 2006), 국가 선거 파일의 협력구축에 관한 연구(윤정옥 2006; 오동근 2006; 박선희 2006; 기민도 2006) 등이 있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 중 RDA에 큰 영향을 미쳤고 각국의 목록규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IFLA의 FRAD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IFLA의 FRAD와 같은 선거데이터를 위한 개념 모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적 선거

제어 표준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그러한 작업의 기초 연구에 해당된다.

이 연구는 IFLA에서 연구되고 있는 선거데이터의 기능상의 요건(FRAD)을 FRAR과 FRAD의 변화 양상의 분석을 통해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5년 발표된 FRAR(초안)과 2007년 발표된 FRAD(2nd 초안)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FRAD의 RDA와 MARC21에 끼친 영향과 국내 선거제어 관련 목록규칙과 선거DB구축 측면의 검토를 기반으로 국내 선거제어 관련 표준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선거제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FRAD의 개념모형 분석

2.1 개요

선거데이터의 개념모형인 FRAD는 FRBR에서 다루어진 주요 개념들을 선거데이터의 작성과 활용을 위해 적용시킨 것이다. FRBR에서는 서지레코드와 관련된 개체에 초점을 두고 이를 개체와 서지레코드간에 다양한 관계유형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이 모형에서는 선거레코드에 수록되는 데이터와 개체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FRBR이 최종 보고서를 발행한 후 이 모형이 향후 선거데이터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IFLA 서지제어분과와 국제서지제어 및 국제 MARC 프로그램은 FRANAR을 위한 IFLA 실무위원회를 1999년 4월에 구성하였다.

FRAD는 FRBR 모형을 확장한 것이며, 실무 그룹은 FRBR 모형의 잠재적인 개선점도 명시하고 있다. FRAD는 전거데이터를 위한 IFLA의 모형으로 최종 발표된 것은 아니며, 계속적으로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무그룹은 2007년 발표된 버전에 대한 전 세계 전문가들의 리뷰를 검토하여 FRAD를 수정 보완하고, 최종적인 모형을 발표할 예정이다.

FRAD는 FRBR과 마찬가지로 개체-관계 모형을 사용한다. FRAD는 전거레코드에 수록된 정보 및 그 정보와 외적 개체(개인, 단체, 저작 등)들 간의 관계, 그리고 이 정보가 이용자 과업을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초점을 둔다. 즉 개체-관계 모형은 도서관이라는 특정한 환경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중에서 공통의 대상 개체와 이들이 가진 일련의 특징 즉, 속성 그리고 이들 사례간에 존재할 수 있는 관계를 정의한 것이다. 개체-관계 모형은 추상적인 어떤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다른 영역에서 사용되는 모형들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접근방식은 개체-관계 모형이 전통적인 전거파일 구조에서부터 벗어나 구현될 수 있는 토대의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2.2 목적 및 범위

2.2.1 주요 내용

FRAD에서 밝힌 개념모형의 목적은 ① 이용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거레코드에 수록된 데이터에 관해 분명하고 구조화된 참조 프레

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② 전거데이터가 도서관과 관련 분야 내에서 국제적으로 공유되고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돕기 위한 것이다(IFLA Working Group on FRANAR 2007).

전거레코드는 서지 인용, 도서관목록이나 서지파일의 레코드에 대해 제어형 접근점으로 사용된 이름 개체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의 집합이며, 여기에는 접근점의 전거형태 또는 우선되는 형태, 이형 등이 포함된다. 또한 포함된 접근점에 관한 관련 정보와 관계가 포함되며, 접근점을 정하는 규칙과 참고정보원, 접근점을 생성하는 일을 맡고 있는 목록기관 등을 식별해주는 정보도 포함된다.

FRAD의 범위로는 상위수준에서는 모든 유형의 전거레코드 즉, 이름 전거레코드, 표제 전거레코드, 이름-표제 전거레코드, 주제 전거레코드와 여러 유형의 식별기호 전거레코드를 포함하지만, 개별 개체의 속성과 관계에서는 이름, 표제, 이름-표제 표목에 대한 전거레코드에 초점을 두었다.

2.2.2 주요 변화

개념모형의 명칭을 '전거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FRAR)'에서 '전거데이터의 기능상의 요건(FRAD)'으로 변경하였다. 2005년 발표된 FRAR 개념모형에서는 모형의 대상이 전거데이터인지 전거레코드인지 애매모호하게 혼재해서 사용하였다.

FRANAR 실무위원회는 전거레코드와 전거데이터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FRAD는 전거데이터에 초점을 두기로 하였다(IFLA Working Group on FRANAR 2007, 1). 즉, 전거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전거

레코드에 패키지화된 것인지에 관계없이 전거 데이터에 초점을 두기로 하고 FRAD 전체에 걸쳐 전거레코드라는 용어를 전거데이터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FRAD에서도 두 용어가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FRAD 서론에 언급된 실무진에 위임된 첫 번째 사항에서 전거데이터가 아닌 전거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을 정의하는 것이라 명시되고 있다.

FRAD의 목적은 FRAR 목적에서 전거레코드가 전거데이터로 용어변경만 있을 뿐 다른 내용은 수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FRAD에서는 FRAR과 달리 목적을 기술하기에 앞서, 도서관 이외의 박물관, 기록관을 도서관 관련 분야로 명시하고, 목록에서 필수적인 개념인 전거제어는 목록자 뿐만 아니라 최종이용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범위에서도 FRAR에서 도서관에만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FRAD에서는 도서관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2.3 FRAD의 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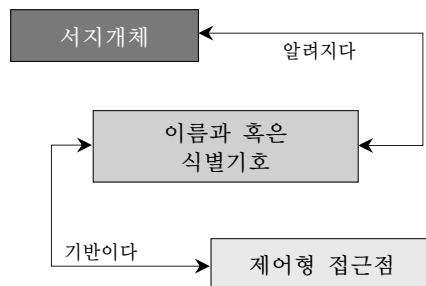
2.3.1 주요 내용

FRAD 모형은 <그림 1>과 같은 간단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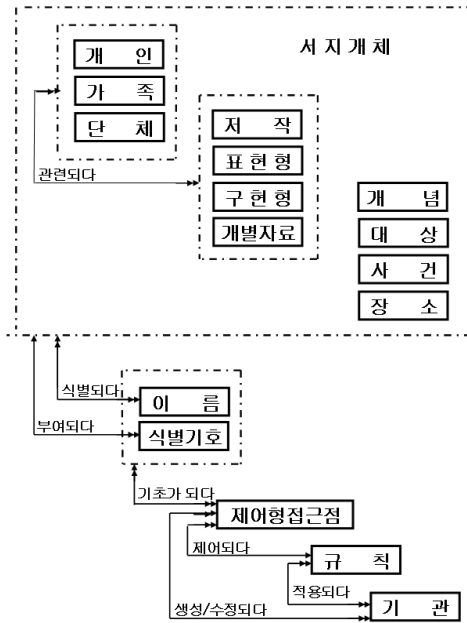
을 기초로 한다. 서지세계에서의 '개체'는 '이름과 / 혹은 식별기호'에 의해 알려지고, '이름과/ 혹은 식별기호'는 '제어형 접근점'을 구성하는 기반이다. FRAD의 상위수준에서 정의된 개체와 관계는 <그림 2>와 같고, 정의된 개체와 그 정의에 대해서는 FRBR과 GARR를 참고하였다(IFLA Working Group on FRANAR 2007).

FRAD에서 정의된 개체들은 FRBR에서 정의된 10가지 개체인 개인(person), 단체(corporate body), 저작(work), 표현형(expression), 구현형(manifestation), 개별자료(item), 개념(concept), 대상(object), 사건(event), 장소(place) 그리고 추가된 개체인 가족(family)은 도표의 상반부에 표현되어 있고, 도표 하반부에는 그 개체들을 식별하는 이름(name), 개체에 부여된 식별기호(identifier), 전거파일에 등록된 이름과 식별기호에 기초한 제어형 접근점(controlled access point), 접근점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체인 규칙(rules)과 기관(agency) 등이 표현되어 있다.

FRAD에서 정의된 주요 개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체 개인은 개인 또는 개인이나 그룹에 의해서 만들거나 채택된 페르소나이며, 가족은 출생, 결혼, 입양 또는 유사한 법적 신분으로



<그림 1> 전거데이터의 개념모형을 위한 기본원리



〈그림 2〉 선거데이터의 개념모형

인해 관계를 맺은 둘 이상의 개인이다. 단체는 한 조직 혹은 하나의 단위로 활동하는 개인의 그룹 또는 조직이다. 개념은 추상적 관념이나 이상이다. 이름은 어떤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 문자 혹은 일련의 단어 그리고 문자의 집합이며, 식별기호는 유일하게 개체와 연관되는 숫자, 코드, 단어, 로고, 장치 등이며 식별기호가 지정된 영역 내에서 다른 개체와 구별되도록 한다. 제어형 접근점은 서지레코드, 선거레코드 또는 참조레코드가 검색될 이름, 용어, 코드 등이다. 규칙은 제어형 접근점(선거 또는 우선형 형태, 참조 등)의 설정 또는 기록에 대한 일련의 지시사항이다. 기관은 제어형 접근점을 생성하고 수정하는 책임을 갖는 조직이다(IFLA Working Group on FRANAR 2007).

FRAD에서 정의된 개체는 도서관 목록 구축에 대한 규칙에 있어서 꼭 필요한 지적 구성체

또는 개념들을 반영하며, 어떤 것이 특정 개체 유형의 구체적 사례로 인식되는가 하는 것은 적용하는 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3.2 주요 변화

FRAD에서는 FRAR과 비교해서 본격적으로 개체, 속성,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개체-관계 방법론에 대한 설명과 개념 모형의 기본원리 속성에 대한 새로운 도표를 추가하였다. FRAD에서 정의된 개체의 주요변화를 보면, FRAD에서는 FRAR에서 정의된 개체 중 15개의 개체는 그대로 정의되었고, 변경된 부분은 FRAR에서의 개체 접근점은 제어형 접근점으로 개체명이 변경되었다.

FRAR에서의 개체 '접근점'은 서지레코드나 선거레코드 또는 참조에서 탐색되고 식별되는 이름, 용어, 부호 등을 나타내며, 선거형 혹은 우

선형뿐만 아니라 이형으로 지정된 접근점을 포함한다(IFLA UBCIM Working Group on FRANAR 2005, 17). FRAD에서는 개체 '접근점'에 대한 정의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다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제어형 접근점'으로 개체명을 변경하였고, FRAR에서는 '이 모형의 목적상 전거파일을 통해 통제되지 않은 이름과 용어는 접근점의 정의에서 제외된다'에서 FRAD에서는 '이 모형의 초점은 전거파일을 통해 통제된 이름과 용어이다'라고 정의하였다(IFLA Working Group on FRANAR 2007, 15). 또한 다른 개체 정의에서의 변경사항은 '단체', '표현형', '구현형', '개념', '대상', '식별기호'에 포함되는 사례를 추가하거나 주를 달아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2.4 속성

2.4.1 주요 내용

속성은 FRBR과 GARR, UNIMARC/Authorities, MLAR, ISAAR(CPF)에서 식별/정의되는 데이터를 조사하여 얻은 것이다. FRAD 모형의 목적상 속성은 명확하게 정의된 데이터 요소가 아니라 그것이 속한 개체의 특성으로, '논리적인' 수준에서 정의된다. 그래서 FRAD에서는 쉽게 변하는 속성과 변하지 않는 속성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고, 목적상 상세한 수준으로 정의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 개체와 다른 개체 상의 관련성을 그 개체의 속성으로 다루기도 하였다.

FRAD에서 정의된 개체의 속성 중 개인, 이름, 제어형접근점의 주요 속성을 보면, 개인의 속성으로는 개인의 생몰년, 개인의 직위, 출생장

소, 개인의 언어, 활동분야, 전문직종/직업 등이 포함되고, 이름의 속성에는 이름의 유형, 이용범위, 이용날짜, 이름언어, 이름의 문자, 이름의 변자표 등이 포함되며, 제어형 접근점의 속성에는 제어형 접근점의 유형, 목록의 언어, 목록의 문자, 제어형 접근점의 정보원 등이 포함된다.

2.4.2 주요 변화

FRAD에서 정의한 개체의 속성에 대한 주요 변화는 <표 1>과 같다. 속성의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의 속성에서는 개인의 날짜가 개인과 관련된 날짜로 속성명이 변경되었고, 저작의 속성에서는 저작의 주제, 역사가, 표현형의 속성에서는 기술이 추가 포함되었다. 이름의 속성에 대해서는 FRAR에서는 이름, 성, 숫자, 직위/존칭, 개인명의 기타부분, 단체명, 상표명, 표제로 정의되었는데 FRAD에서는 이름의 유형으로

<표 1> FRAR과 FRAD의 속성 비교

개 체	속 성	
	FRAR	FRAD
개 인	- 개인의 날짜	- 개인과 관련된 날짜
저 작		- 저작의 주제 - 역사
표현형		- 기술
이 름	- 이름 - 성 - 숫자 - 직위/존칭 - 개인명의 기타부분 - 단체명 - 상표명 - 표제	- 이름의 유형
제어형 접근점	- 접근점의 유형 - 접근점의 상태 - 접근점의 지정된 용법 - 접근점의 정보원	- 제어형접근점의 유형 - 제어형접근점의 상태 - 제어형접근점의 지정된 용법 - 제어형접근점의 정보원

전면 수정되었다. FRAR의 접근점이 FRAD의 제어형 접근점으로 바뀌면서, FRAD의 제어형 접근점의 유형, 상태, 지정된 용법, 정보원으로 변경되었다.

2.5 관계

2.5.1 주요 내용

FRAD에서는 전거데이터에 반영된 관계를 네 가지 범주로 기술하고 있다. 첫 번째 범주는 <그림 2>에서 표현된 개체 유형들 간에 상위수준에서 표현된 관계이다. 개인, 가족, 단체는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간에는 '관련되다'의 관계를, 개인과 가족, 단체,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개념, 대상, 사건, 장소는 이름과 '식별되다'의 관계를, 마찬가지로 이들 개체는 식별기호와 '부여되다'의 관계를 갖는다. 또한 특정 이름이나 식별기호는 제어형 접근점과 '기초가 되다'의 관계를, 제어형 접근점은 규칙과 '제어되다'의 관계를, 제어형 접근점은 기관과 '생성/수정되다'의 관계를, 규칙은 기관과 '적용되다'의 관계를 갖는다.

두 번째 범주는 정보주기, 지시 문구, 목록자 주기나 표출어를 생성하는 부호화 데이터에 의해 설명되거나 전거형태와 다른 전거 형태 사이의 '도보라' 참조관계를 통해 암시될 수도 있으며, 이 범주는 개체 개인, 가족, 단체, 저작 사이의 관계가 포함된다. 세 번째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형에서 전거형태로 지시해 주는 '보라'참조를 통해 내포되며, 이름과 개인, 가족, 단체, 저작 간의 관계이다. 네 번째 범주는 전거레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연결구조(예를 들어 다른 문

자로 기록된 동일 데이터를 전달하는 필드 간의 연결)에 수록된 개체 접근점의 특정 사례 간의 관계로 이루어지며, 이 범주는 접근점 간의 관계이다. 각 범주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관계 유형의 사례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제시된 사례는 단지 대표적 유형일 뿐이며, 관계들을 총망라한 것은 아니다.

2.5.2 주요 변화

관계에서의 변경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에서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형제관계, 부모/자식 관계가 추가되었고, 단체간의 관계에서는 FRAR에서 정의된 여러 관계가 삭제되고, 계층관계와 선후관계가 정의되었다. 저작간의 관계 역시 FRAR에서 정의된 여러 관계가 일부 삭제되고, 대등관계, 파생관계, 기술관계, 딸림자료관계, 선후관계, 특성공유 관계가 추가되었다. 개인과 이름 관계에서는 FRAR에서는 결혼전/후의 이름 관계가 삭제되고 공식적 이름관계와 기타 이형관계가 추가되었다. 단체와 이름 관계에서는 약어관계, 필명관계, 기타 이형관계가 추가되었다. 저작과 이름 관계에서는 관용이름관계와 기타 이형관계가 추가되었다. 접근점간의 관계에서는 이름/유사주제 용어 또는 분류관계, 이름/식별기호 관계가 추가 되었다.

<표 2>와 같이 개체간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강화한 것은 FRAD의 특징 중 하나에 해당된다. 특히 저작간의 관계에서 FRAR은 FRBR 저작간의 관계를 그대로 수용하였으나, FRAD에서는 Tillett(1987)이 제시한 7가지의 서지적 관계 유형을 적용하였다.

〈표 2〉 FRAR과 FRAD의 관계 비교

개체 유형	관계 유형 예		개체 유형	관계 유형 예		개체 유형	관계 유형 예	
	FRAR	FRAD		FRAR	FRAD		FRAR	FRAD
개인 ◇ 개인	필명 관계 귀속 관계 합작 관계	필명 관계 귀속 관계 합작 관계 <u>형제 관계</u> <u>부모/자식 관계</u>	개인 ◇ 이름	본명 관계 필명 관계 <u>결혼전 이름 관계</u> <u>결혼후 이름 관계</u> 세속적 이름 관계 종교적 이름 관계 이전 이름 관계 이후 이름 관계 대체 언어형태 관계	본명 관계 필명 관계 세속적 이름 관계 종교적 이름 관계 <u>공식적 이름 관계</u> 이전 이름 관계 이후 이름 관계 대체 언어형태 관계 <u>기타 이형 관계</u>			
단체 ◇ 단체	전신/후신 관계 분리 관계 합병 관계 종속 관계 선후 관계 기타 관계	<u>계승 관계</u> 선후관계	가족 ◇ 이름	대체언어형태관계	대체언어형태관계	접근점 ◇ 접근점	유사 언어 관계 대체스크립트 관계 다른 규칙 관계	유사 언어 관계 대체스크립트 관계 다른 규칙 관계 <u>이름/유사주제 용어 또는</u> <u>분류번호관계</u> <u>이름/식별기호 관계</u>
저작 ◇ 저작	후속 관계 부록 관계 보유 관계 요약 관계 개작 관계 변형 관계 모방 관계 전체/부분 관계 기타 관계	<u>대등 관계</u> <u>파생 관계</u> <u>기술 관계</u> 전체/부분 관계 <u>발립자료</u> 관계 <u>선후 관계</u> <u>공유 관계</u>	단체 ◇ 이름	확장명 관계 두문자어/머리글자 관계 대체 언어형태 관계	확장명 관계 두문자어/머리글자 <u>/약어관계</u> 필명 관계 대체 언어형태 관계 <u>기타 이형 관계</u>			
			저작 ◇ 이름	대체 언어형태 관계	대체 언어형태 관계 <u>관용 이름 관계</u> <u>기타 이형 관계</u>			

2.6 이용자 및 이용자 과업

2.6.1 주요 내용

FRAD에서 전거데이터의 이용자는 ① 전거 파일을 만들고 관리하는 전거데이터 작성자, ② 전거파일에 직접 접근하거나 또는 목록, 국가서지, 다른 유사한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제어형 접근점(전거형, 참고문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거 정보를 사용하는 이용자로 대별된다.

그리고 이들이 전거제어를 통해 수행하는 과업은 탐색하고, 식별하고, 관계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IFLA Working

Group on FRANAR 2007, 50). 이용자는 전거 레코드를 해당개체의 속성이나 관계를 통해 적합한 개체를 ‘탐색’하기 위해, 표현된 개체와 탐색된 개체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거나 유사한 특성을 지닌 복수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 문맥에서 개인, 단체, 저작 등 개체들 사이에 서로 다른 ‘관계를 명백하게 설명’하기 위해, 접근점이 기초하고 있는 이름이나 이름의 형태를 선택하고 전거데이터 구축자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들 가운데 처음의 세 과제는 전거데이터 작성자와 최종이용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마지막 과업은 전거데이터 작성자

에게만 적용된다.

2.6.2 주요 변화

FRAD에서는 FRAR과 같이 전거제어 적용 대상을 관리자와 이용자 두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FRAR에서 이용자는 '전거파일을 구축, 유지, 직접 이용하는 전거레코드 구축자와 참고사서를 포함하고, 또한 도서관 목록, 국가서지 등의 전거파일에 직접 접근하거나 그 접근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거정보를 이용하는 도서관 이용자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여 도서관 영역으로 한정시켜 이용자 그룹을 세분했지만, FRAD에서는 도서관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 범위를 확장했기 때문에 이용자 그룹을 확대 수정하였다. 또한 FRAD의 이용자 과업은 FRAR과 유사하게 정의되었으며, 탐색과 식별하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추가하고 근거제시에서 접근점이 제어형 접근점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2.7 도서관분야에서 전거데이터와 전거 데이터 교환

2.7.1 주요 내용

FRAD에서는 도서관 목록작성 과정을 다음 3 단계로 설명한다. 첫째 목록자가 도서관 자원을 위해 서지기술을 작성하는 단계, 둘째 목록자가 접근점을 선정하는 단계, 셋째 목록자가 접근점을 전거파일에 등록하는 단계이다. 또한 FRAD에서는 전거파일의 기능을 첫째 결정 근거 제공, 둘째 참조도구 기능, 셋째 서지파일에서 사용되는 접근점의 형식 제어, 넷째 이용자들이 서지파일에 접근하도록 돕는 것, 다섯째 서지파일과 전거파일 간의 연결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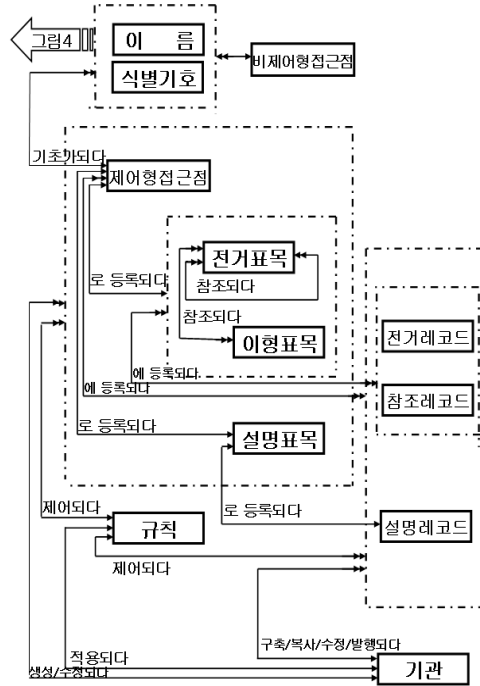
FRAD에는 <그림 2>에 기초하여, 도서관 영역에서의 전통적인 구조를 반영한 모형을 <그림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IFLA Working Group on FRANAR 2007, 63).

FRAD 마지막 장에서는 도서관 영역에서의 전거데이터 공유와 다른 영역 간의 전거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 설명한다. 전거 파일은 개별 도서관에 의해 구축되고 유지될 수도 있고, 전거 파일 구축을 위한 도서관 협의체가 동일한 규칙과 관행을 따르고 파일이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한다면 이들에 의해 공동 개발되고 유지될 수도 있다. 전거파일은 네트워크 환경이 확산됨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이용되며, 많은 참여 기관들이 입력한 국가적, 초국가적 전거파일이 공동으로 구축되고 유지되고 있다.

전거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용하는 영역은 도서관 영역뿐만 아니라 기록보존소, 박물관, 권리보장단체 등이며, 이들은 도서관이 구축한 전거파일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 파일을 구축하여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영역 간에 전거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도서관과 기록관·박물관·권리보장단체 사이에는 기능과 관행 면에서 분명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이외의 영역에도 이 모형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영역 간의 데이터 전송은 통일된 규칙과 관행이 적용되는 정도와 데이터 구조의 호환 정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2.7.2 주요 변화

<그림 2>에서는 개체 '비제어형 접근점'이 추가되었다. 즉 전거형과 이형의 '제어형 접근점'뿐만 아니라 '비제어형 접근점'도 포함하고 있는



〈그림 3〉 도서관영역의 접근점과 전거레코드

것이다. 이런 변경은 국제목록원칙 규범(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접근점은 제어 될 수도 제어 되지 않을 수도 있다'(ICCP 2008, 5)는 원칙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FRAR 범위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도서관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FRAR의 전체적인 구조 및 순서를 수정하여, FRAR의 3장 도서관에서의 전거파일이 FRAD의 7장으로 옮겨지면 FRAR의 부록A가 FRAD의 7.4로 이동 부분 보완되었다. 그러나 FRAD 7장의 구성을 보면 아직도 도서관 중심적이며, 도서관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3. FRAD와 RDA, MARC21과의 관계

FRAD는 이미 RDA와 국제목록원칙규범(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각 국의 목록규칙과 포맷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에서는 FRAD가 RDA와 MARC21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RDA와의 관계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는 AACR2R에 이은 미래의 목록규칙이라 할 수 있는데, 2009년 초 발표를 목표로 개정작업 중에 있다. RDA는 전통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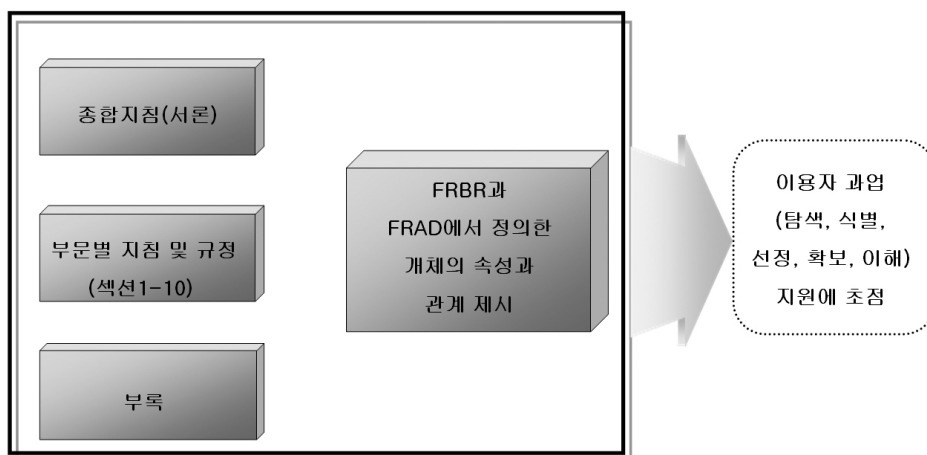
원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내용(content)과 매체를 포괄하는 자원 기술과 접근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RDA는 도서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기록관, 박물관, 출판사 등에서도 사용 메타데이터 표준과 RDA를 일치시켜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DA는 이전 규칙과는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RDA를 설계하는데 있어 첫 번째 핵심 요소는 IFLA에서 개발한 FRBR과 FRAD 모형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모형들은 개체-관계 모형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RDA는 객체-지향(혹은 개체-관계)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보다 적합하고, 그러한 구조가 데이터 수집, 저장, 검색, 디스플레이에서 제공하는 효율성과 신축성의 잇점을 갖게 된다. 또한 RDA는 모든 내용과 매체를 포괄할 수 있고, 새롭게 발생하는 자원의 특성을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과 확장성이 있으며, 광범위한 기술 환경 내에서 적절히 기능할 수 있는 적응성이 있다(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2008a).

두 번째 핵심적인 요소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과 표현간의 분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RDA가 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FRBR과 FRAD 모형에서 정의한 개체와 관련된 속성과 관계를 반영한 데이터의 기록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RDA는 내용표준(content standard)이기 때문에, MARC21과 MODS와 같은 데이터 교환 포맷이나 ISBD와 같은 디스플레이 포맷에는 독립적이다. 또한 RDA는 쉽고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AACR2에 기초한 기존 파일과의 통합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2008a).

RDA의 전체적인 구성은 서론과 10개의 섹션, 부록으로 이뤄진다. RDA는 초기에는 파트 1, 2, 3으로 나뉘었다가, 파트 1과 2로 합쳐졌으나, 2007년 말 현재의 10개의 섹션으로 재편되었다. RDA의 개발 취지문을 보면 <그림 4>와 같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다(박지영, 김태수 2007).



<그림 4> RDA의 전체적인 개요

종합지침에 해당하는 서론은 RDA의 개괄적인 목적과 범위, 특징, 다른 관련 표준과의 관계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며, RDA의 개발 원칙과 기반이 되는 개념 모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또한 서론에서는 RDA의 전체적인 구성체제와 각 섹션에서의 핵심요소, 지침과 예시 표현 관례,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언어 및 전사 관련 지침과 관례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부분별 지침 및 규정에 해당하는 섹션 1에서 10은 <표 3>의 왼쪽과 같다. 여기에는 FRBR과 FRAD에서 정의한 개체 정의와 관계에 관련된 지침을 포함한다. 섹션 1부터 4까지는 FRBR와 FRAD에서 정의한 개체의 속성 기록 섹션이고, 5부터 10까지는 관계 기록 섹션이다(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2008b).

이 절에서는 FRAD와 RDA의 영향관계를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FRAD가 RDA의 토대로 활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RDA의 곳곳에서 발견되는 FRAD의 개체, 속성, 관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RDA의 지침에서 사용된 용어는 FRAD에서 정의된 개념과 용어와 일치되도록 하였고, FRAD에서 정의한 4가지 이용자과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체, 속성과 관계를 반영하는 형식적인 데이터의 지침과 도구를 제공한다.

RDA의 주요개념은 자원(resource), 자원발견(resource discovery), 기술 데이터(descriptive data), 접근점제어 데이터(access point control data)이며, 이중 접근점제어 데이터는 제어형 접근점에 의해 표현된 개체를 기술하는 데이터로서, 제어형 접근점은 특정 규칙에 의해 생성된 접근점이다. 제어형 접근점에는 우선형(혹은 전거형), 이형이 포함된다(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2008b).

RAD에 반영된 FRAD는 RDA에서는 요소(elements)로 표현된다. RDA와 FRAD와의 관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RDA의 전체구성에서 FRAD에서 정의된 개체의 관계와 속성이 반영된 절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이 분석결과는 JSC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RDA to FRAD mapping'과 'FRAD to RDA mapping'(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2008c, 2008d)을 분석한 것이다.

<표 3>에서 보면, RDA의 접근점제어 데이터와 관련된 섹션은 섹션 3(개인, 가족, 단체의 속성 기록), 4(개념, 대상, 사건, 장소의 속성 기록), 9(개인, 가족, 단체간의 관계기록), 10(개념, 대상, 사건, 장소간의 관계기록)의 전장과 섹션 2(저작과 표현형의 속성 기록), 8(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간의 관계기록)의 일부장이다. 이 중 FRAD가 반영된 장은 6장(저작과 표현형의 식별), 8장(개인, 가족, 단체의 속성 기록 일반 지침), 9장(개인 식별), 10장(가족 식별), 11장(단체 식별), 12장(개념, 객체, 사건, 장소의 속성 기록 일반지침), 13장(개념의 식별), 14장(대상의 식별), 15장(사건의 식별), 16장(장소의 식별), 25장(관련 저작), 26장(관련 표현형), 29장(개인, 가족, 단체간의 관계 기록 일반지침), 30장(관련 개인), 31장(관련 가족), 32장(관련 단체)이다. RDA의 요소는 상당부분 FRAD에서 정의한 속성 혹은 관계와 대응되며, RDA 요소의 범위 역시 FRAD에서 정의한 속성 혹은 관계의 범위와 대응된다.

RDA에 반영된 FRAD의 속성과 관계를 보면, FRAD에서 정의된 개체 중 개인, 가족, 단체, 장소, 저작과 표현형의 속성과 관계는 모두

반영되었다. 개체 이름, 식별기호, 제어형 접근 개체 규칙, 개념, 대상, 사건의 속성과 관계, 제
 점, 규칙의 속성과 관계는 일부 반영되었지만, 어형접근점간의 관계는 제외되었다.

<표 3> RDA와 FRAD와의 관계

섹션		RDA		접근제어 데이터 관련	FRAD 반영
		장			
섹션1	구현형과 개별자료의 속성 기록	1	구현형과 개별자료의 속성 기록 일반지침		
		2	구현형과 개별자료의 식별		
		3	매체 기술		
		4	입수 및 접근정보를 제공		
섹션2	저작과 표현형의 속성 기록	5	저작과 표현형의 속성 기록 일반지침	○	
		6	저작과 표현형의 식별	○	○
		7	내용 기술		
섹션3	개인, 가족, 단체의 속성 기록	8	개인, 가족, 단체의 속성 기록 일반 지침	○	○
		9	개인 식별	○	○
		10	가족 식별	○	○
		11	단체 식별	○	○
섹션4	개념, 대상, 사건, 장소의 속성 기록	12	개념, 객체, 사건, 장소의 속성 기록 일반지침	○	○
		13	개념의 식별	○	○
		14	대상의 식별	○	○
		15	사건의 식별	○	○
		16	장소의 식별	○	○
섹션5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 자료간의 주요관계기록	17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간의 주요관계 기록 일반지침		
섹션6	자원과 관련된 개인, 가족, 단체간의 관계 기록	18	자원과 관련된 개인, 가족, 단체간의 관계 기록 일반지침		
		19	저작과 관련된 개인, 가족, 단체		
		20	표현형과 관련된 개인, 가족, 단체		
		21	구현형과 관련된 개인, 가족, 단체		
		22	개별자료와 관련된 개인, 가족, 단체		
섹션7	(저작간의) 주제관계기록	23	저작의 주제 기록 일반지침		
섹션8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 자료간의 관계기록	24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간의 관계 기록 일반지침	○	
		25	관련 저작	○	○
		26	관련 표현형	○	○
		27	관련 구현형		
		28	관련 개별자료		
섹션9	개인, 가족, 단체간의관계 기록	29	개인, 가족, 단체간의 관계 기록 일반지침	○	○
		30	관련 개인	○	○
		31	관련 가족	○	○
		32	관련 단체	○	○
섹션10	개념, 대상, 사건, 장소간의 관계기록	33	개념, 객체, 사건, 장소간의 관계 기록 일반지침	○	
		34	관련 개념	○	
		35	관련 대상	○	
		36	관련 사건	○	
		37	관련 장소	○	

3.2 MARC21과의 관계

2008년 3월 RDA/MARC 실무그룹이 영국 국립도서관, 캐나다도서관청, 미의회도서관 협력하에 구성되었다. 이 실무그룹은 RDA 데이터의 인코딩에 적합하도록 MARC21 포맷을 수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AACR과 MARC21과의 밀접한 관계는 수세기 동안 효율적인 도서관간 정보교환에 기여해 왔다. 따라서 RDA/MARC 실무그룹은 RDA를 지원하기 위해 MARC21에 요구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미래에 효과적인 데이터 교환방법을 검증할 것이다(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2008e).

이 실무그룹에서는 2008년부터 MARC21의 변화되어야 할 내용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JSC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RDA 데이터 요소가 기존 MARC21 구조에 통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실무그룹은 MARC(전거포맷) 변경 내용에 대해 2009년 현재까지 2건의 제안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절에서는 2009년 1월 발표한 'New data elements in the MARC 21 Authority Format'과 'Identifying work, expression, and manifestation records in the MARC21 Bibliographic and Authority formats'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2008e).

문서 'New data elements in the MARC21 Authority Format'의 주요 내용은 FRAD의 영향으로 RDA에 이전에는 기록되지 않거나 개별적으로 인코딩되지 않던 개인, 단체, 가족의 부가적인 정보에 관한 요소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MARC 전거포맷에 추가되어야 할 필드를 검토

하기 위한 것이다.

RDA 최종초안 부록 E에 수록된 RDA와 MARC21 전거포맷의 매핑을 살펴보면, RDA의 어떤 요소들은 필드와 서브필드, 구조화되지 않은 주기필드에 매핑되거나 매핑되지 않을 수도 있다. FRAD의 영향으로 RDA에는 AACR2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다수의 새로운 요소들이 포함되었다. 실무그룹은 이러한 새로운 요소를 MARC21의 필드로 처리할 것인가와 구조화되지 않은 주기필드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 후, RDA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 결정은 MARC 자문위원회의 동의를 얻었고, 실무그룹은 날짜, 장소, 주소, 언어, 활동, 성, 가족정보 등의 범주를 중심으로 전거포맷에 구체적으로 추가되어야 하는 새로운 데이터 요소를 검토하였다.

• 날짜

RDA에는 FRAD의 영향으로 특정 종류의 날짜를 위한 데이터요소를 포함된다. 예를 들어 개인과 관련된 날짜(RDA 9.3)에서 개인이 태어난 연도인 출생일은 개인의 출생월일도 포함할 수 있고(RDA 9.3.2.1, FRAD 4.1), 사망일과 활동기간에는 사망월일을 포함할 수 있다(RDA 9.3.3.1, RDA 9.3.4.1). 단체와 관련된 날짜(RDA 11.4, FRAD 4.3)에서 단체의 설립일자(RDA 11.4.3.1), 해산일자(RDA 11.4.4.1)를 포함할 수 있다. 가족과 관련된 날짜(RDA 10.4, FRAD 4.2)에서 가족과 관련된 중요 날짜를 포함할 수 있다(RDA 10.4.1.1). 실무그룹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포괄하기 위해 '046 - 특별한 연도 부호(SPECIAL CODED DATES)'의 신설

을 제안하였다. MARC21서지포맷에 046 필드가 이미 존재하지만, 다수의 서브필드가 전거레코드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서지포맷 046에 정의되지 않은 서브필드부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 장소

날짜와 마찬가지로 RDA에는 특정 유형의 장소를 위한 데이터요소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개인과 관련된 장소(RDA 9.8, FRAD 4.1)에서 출생장소와 사망장소에는 개인이 태어난 마을, 도시, 도, 주, 국가가(RDA 9.8.1.1, RDA 9.9.1.1), 개인과 관련된 국가에는 개인을 식별하는 국가(RDA 9.10.1.1), 거주지역에는 개인이 사는 국가, 주/도, 도시가 포함된다(RDA 9.11.1.1). 단체와 관련된 지역(RDA 11.3, FRAD 4.3)에는 회의장소나 본부위치 등 단체와 관련된 중요한 장소가(RDA 11.3.1.1), 가족과 관련된 장소(RDA 10.5.1.1, FRAD 4.2)에는 가족이 거주했거나 가족과 관련된 장소가 포함된다. 저작의 유래지에는 저작이 창작된 국가나 기타 지역 관할구가 포함된다(RDA 6.5.1.1 FRAD 4.4). 실무그룹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포괄하기 위해 '621 - 부가적인 장소(ADDITIONAL PLACES)'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 주소

개인의 주소(RDA 9.12.1.1, FRAD 4.1)에는 개인의 거주지, 사업장, 직장주소, 이메일주소, 인터넷주소가, 단체의 주소(RDA 11.8.1.1, FRAD 4.3)에는 단체의 본부나 사무실의 주소, 이메일주소,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다. 실무그룹은 이 요소를 위한 새로운 필드로 '622 - 주소(ADDRESS)' 신설을 제안하였고, MARC21서지포맷의 270필드

를 준거로 하되 전거정보에 유용하도록 재정의 하였다.

• 언어

RDA에는 FRAD의 영향으로 개인과 단체의 언어를 위한 요소를 포함한다. 개인의 언어(RDA 9.14.1.1, FRAD 4.1)에는 개인이 저술과 방송 등을 위해 사용한 언어가, 단체의 언어(RDA 11.7.1.1, FRAD 4.3)에는 그 단체가 의사소통에 사용한 언어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628 - 관련된 언어(ASSOCIATED LANGUAGE)' 필드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 활동

RDA에는 FRAD의 영향으로 개인과 단체의 활동 요소를 포함한다. 개인의 활동분야(RDA 9.15.1.1, FRAD 4.1)에는 도전분야나 전문영역이, 소속에는 개인이 고용, 입회, 문화적 정체감을 통해 가입된 그룹이 포함되며(RDA 9.13.1.1, FRAD 4.1), 전문직종/직업에는 개인이 종사하는 전문직종이나 직업이 포함된다(RDA 9.16.1.1, FRAD 4.1). 단체의 활동분야(RDA 11.9.1.1, FRAD 4.3)에는 단체가 종사하는 사업분야, 권할영역, 책임영역, 관할구 등이 포함된다. 실무그룹은 활동을 위한 새로운 필드로 '623 - 활동분야(FIELD OF ACTIVITY)', '624 - 소속(AFFILIATION)', '625 - 직업(OCCUPATION)' 등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 성

RDA에는 개인의 성에 관한 요소가 포함되었다. 성(RDA 9.7, FRAD 4.1)에는 개인을 식별하는 성이 포함된다. RDA에서는 성과 관련된

여 여성, 남성, 알수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적절한 문구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 그룹은 '626 - 성(GENDER)'을 개인의 성을 위한 새로운 필드로 제안하였다.

• 가족정보

RDA에는 가족과 관련된 부가적인 정보를 위한 요소를 포함한다. 이런 요소들은 이전규칙에서는 독립된 요소로 기술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가족의 유형(RDA 10.3.1.1 FRAD 4.2)에는 일가, 왕조 등과 같은 가족 유형에 대한 분류나 일반적 기술어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실무그룹은 '627 - 가족정보(FAMILY INFORMATION)'의 필드 신설을 제안하였다.

문서 'Identifying work, expression, and manifestation records in the MARC21 Bibliographic and Authority formats' 중 전거포맷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MARC21(전거포맷)에서 011(저작 혹은 표현형 레코드) 필드의 신설을 제안한 것이다. 011 필드의 목적은 작성된 레코드의 수준을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저작 수준의 레코드인지, 혹은 표현형 수준의 레코드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작수준의 레코드인 경우, '011 ## \$awork \$2rda'로, 표현형수준의 레코드인 경우, '011 ## \$aexpression \$2rda'로 기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4. 국내 전거제어 관련 표준을 위한 고려사항

이 장에서는 국내 전거데이터 관련 환경을 규

칙과 포맷측면에서 살펴보고, IFLA에서 제안한 FRAD 개념 모형, FRAD와 RDA, MARC 21의 관계에 대한 앞장의 분석을 토대로 국내 전거제어 관련 표준을 위한 고려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국내 주요 도서관의 전거 구축 현황을 사용 포맷, 규칙, 구축대상, 구축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우선 전거레코드 포맷을 보면, KORMARC(전거통제용)과 MARC21(Authority)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KORMARC(전거통제용)이 USMARC Authority Data를 기반으로 한 점을 고려하면, 세부적인 사항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은 유사한 포맷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거레코드 구축을 위해 사용하는 규칙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서양서에 대해서는 AACR2를 대부분 사용하였고, 동양서의 경우 기관마다 적용 규칙을 달리하고 있다. 동양서의 경우, KCR 4판에서는 전거레코드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재 전거제어와 관련된 규정조항은 KCR 2판(1966)뿐이다. 그러나 저자명기본표목의 원칙을 충실히 따른 KCR 2판은 표목부와 관련하여 표목의 형식을 한글로만 하고, 외국인명과 서명 등은 번차표목으로 하며, 구두점을 사용하고, 성과 이름 사이는 반드시 쉼표(.)를 찍도록 했다. 한국인에게도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를 사용하도록 해 관용법을 전혀 무시하고 표준화를 지나치게 추구하고 있고, 거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글 맞춤법이나 외래어 표기법 등과 많은 차이점이 있어 현장에서는 적용상의 어려움이 있다. 결국 개별 도서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작성한 규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대표표목에 관한 내부규정을 정하여 사용하

〈표 4〉 국내 주요도서관의 전거레코드 구축현황

구 분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도서관	연세대도서관	서강대학교도서관
포 맷	KORMARC (전거통제용)	MARC21 (Authority)	KORMARC (전거통제용)	KORMARC (전거통제용)
규칙	서양서규칙	AACR2	AACR2	AACR2
	동양서규칙	자체매뉴얼	자체매뉴얼	자체매뉴얼
동양서 (일서, 중국서)의 채택표목(1XX) 의 표기	- 중국인: 중국음의 한글 표기 - 일본인: 일본음의 한글 표기 ※ 국립국어원 외래 어 표기법	*영문표목채택 (*일서: 수정 Hepburn식 *중국서: Pinyin식)	한자의 한글음과 \$h한자표기	한자의 한글음과 \$h 한자표기 \$d 생몰년
동양서 로마자의 변형표기 방식	-	-	*일서: 수정 Hepburn식 *중국서: Pinyin식	실물에서 찾을 수 있는 로마자만 기입
대 상	개인명 위주 (국내인명제외) (단체명 일부 포함)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인명주제명, 단체주제 명, 통일서명, 총서명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인명주제명, 단체주제명, 지명주제명	개인명, 단체명, 총서명, 통일서명, 지명주제명
구축방식	LC, OCLC, ND, NACSIS 등 참조 및 다운로드	LC, OCLC, NII 참조 및 다운로드	LC, OCLC, NII 참조 및 다운로드	참조정보원에서 확인 후 직접 작성
구축건수	143,972	369,885	587,274	309,149

※ 출처: 박선희(2006)의 표를 참고하되, 2009년 현황을 반영하여 수정함.

고 있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서양서에 대해서는 AACR2를 준거로 하되, 동양서에 대해서는 KCR2를 준거로 한 자체매뉴얼을 사용하고 있다.

〈표 5〉는 국내 주요도서관에서 구축된 개인명 전거레코드(채택표목)이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거제어 관련 규칙의 미비로 도서관마다 상이한 지침을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개인명에 대한 전거레코드가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상이한 채택표목의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표목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거레코드를 활용한 검색에서도 도서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스티

븐 킹을 채택표목으로 삼고, 스테판 킹으로 검색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연세대학교 도서관은 스티븐 킹과 스테판 킹, 두 가지 이름의 형태로 동일한 저작들을 검색해 낼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윤정옥 2006).

KCR 4판에서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을 서지기술의 국가 표준인 한국목록규칙에 포함시키지 않고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미루어 버리는 것은 개별 도서관의 관행대로 처리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은 목록규칙 편찬자 또는 목록 작성자의 편의성만을 따른 것 밖에는 안 된다(이창수 2005)는 일부 비판의 소리가 있다. 현재 국내 전거레코드의 구축현황을 보면, 이런 비판의 소리가 현실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전거레코드의

〈표 5〉 국내 주요도서관에서 구축된 개인명 전거레코드

구 분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도서관	연세대도서관	서강대학교도서관
한글인명	해당없음	이문열, \$d1948-	이문열 \$h李文烈	이문열 \$q李文烈, \$d1948
일본인명	미우라야아코, \$d1922-1999	Miura, Ayako, \$d1922-	삼포능자 \$h三浦綾子	삼포능자 \$h三浦綾子, \$d1922-1999
중국인명	마오쩌둥, \$d1983-1976	Mao, Zedong, \$d1893-1976	모택동 \$h毛澤東	모택동 \$h毛澤東, \$d1893-1976

※ 출처: 박선희(2006)의 표를 참고하되, 국립중앙도서관의 예를 추가함.

호환성에 문제가 있으며 국내 전거제어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IFLA에서 제안한 FRAD 개념 모형, FRAD와 RDA, MARC21의 관계, 국내의 전거제어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전거제어 관련 표준을 위한 고려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고려사항은 전거제어방식과 관련된 문제이다. 전거제어 방식은 크게 전통적인 전거제어방식과 접근점 제어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FRAD는 비제어형 접근점을 포함하지만, 전통적인 전거제어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RDA 역시 전통적인 전거제어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컴퓨터의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처리 능력을 전거제어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전거제어의 핵심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점 즉 전거형과 이형의 구분에 관하여 전통적인 전거방식에 견해를 달리한 접근점 제어방식이 제기되었다. 이 방식은 상이한 형식들은 모두 접근점으로 제시하고 특정한 표준이나 전거형식을 두지 않으며 각 레코드 간에는 상호 링크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Tillett 1995). 이 방식에서는 자료에 기재된 다양한 형식의 이름을 포함하여 접근점의 표시 형식을 디폴트로 지시할 수 있으

며, 온라인목록에서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형식을 선택하거나 각 도서관이 자관의 형식을 결정하면 된다(Tillett 1995, Barnhart 1996). 접근점제어파일에서는 전통적인 '전거'라는 개념이 배제되며 관련된 인물이나 단체, 저작 간을 관련 짓기 위해 각 레코드 상호간이 연결된다(Tillett 1990, Jensen and Schulz, Scott 1998).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우리 인간이 모든 사물이나 개체를 자기 다양한 형식의 이름으로 식별하고 있다는 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Taylor 1999). 즉 개인은 독립된 개체이면서도 여러 형식의 이름으로 식별되고 있다는 점이다.

FRAD도 제어형 접근점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FRAD 2007년 초안 <그림 3> '도서관 맥락에서 접근점과 전거레코드'에서는 '비제어형 접근점'이라는 개체가 포함되었다. 이런 변화는 국제 목록원칙 규범(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접근점은 제어 될 수도 제어되지 않을 수도 있다'(IFLA IME ICC 2008, 5)는 원칙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제정된 KCR 4판에서 표목대신 접근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기본표목과 통제표제의 개념을 배제하고,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에 대해서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KCR 4판에서는 모든 접근점을 동등하게 보아 표목의

선정기준과 대표표목의 형식을 규정하지 않고 서로 상이한 형식의 표목간의 연결은 전거시스템에서 해결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KCR 4판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전거제어 방식은 전통적인 전거제어방식보다는 접근점제어방식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전거를 위한 국내 표준 포맷으로는 1999년 제정된 KORMARC(전거통제용)이 있다. 현재 KORMARC(전거통제용)에서 1XX는 채택표목으로서 사용하고 있다. KCR 4판에서는 기본표목과 통일표제를 배제할 뿐 전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기 때문에 KCR 4판과 KORMARC(전거통제용)의 1XX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KORMARC(서지통합용)에서는 1XX 필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둠으로서 KCR 4판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지만, KORMARC(전거통제용)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KCR 4판 관점에서 현재의 채택표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 표준 목록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KCR 4판의 관점에서 보면, 국내 전거제어의 방식은 전통적인 전거제어방식보다는 접근점제어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KCR4판의 기본개념을 수용해서 전거형과 이형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접근점 간의 연결은 여전히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연결 작업을 위해서는 전거데이터의 수집, 분석, 그리고 관련데이터 연결 등 기본적인 작업은 계속 필요로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표준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전거제어 관련 규칙의 적용대상 확대의 문제이다. FRAD에서는 전거데이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도서관분야에 한정하지 않

고 있다. FRAD의 영향을 받은 RDA 역시 도서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기록관, 박물관, 출판사 등의 사용도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RDA에서는 기록관에서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MARC21에서도 RDA에 새롭게 포함된 날짜, 장소, 주소, 언어, 활동, 성, 가족정보 등 몇 가지 범주에서 추가되어야 필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필드를 제안한 상태이다. 그러나 국내 전거제어 관련 규칙 및 포맷은 주로 도서관을 고려할 뿐 다른 커뮤니티의 사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각 기관에서 구축된 전거데이터를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과 국제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기반의 시대를 대비한 표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전거제어 관련 규칙 설계시 RDA가 취한 개체-관계 모형과 같은 새로운 접근방식 도입의 문제이다. RDA의 설계시 IFLA에서 개발한 FRBR과 FRAD 모형을 기초로 활용함으로써, RDA는 객체-지향(혹은 개체-관계)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보다 적합하고, 그러한 구조들로 인해 효율성, 신축성, 포괄성, 융통성, 확장성, 적응성을 갖게 된다. RDA는 개체-관계 모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어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분량의 지침을 관계에 할애하고 있다. 또한 RDA의 구체적인 섹션과 장 구성에서도 총론에 이어 속성 부분이 나오고, 다음으로 관계 부분이 뒤따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내 전거제어 관련 규칙 설계시 개체-관계 모형과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을 도입하면 관련 표준에 개체와 관계, 속성의 개

념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관계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고려사항과 함께 국내 선거제어 관련 표준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은 선거제어 업무를 위한 주관기관, 즉 국가서지작성기관의 역할 강화와 이를 통한 공유 선거파일 구축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개별 도서관마다 선거데이터를 개별적으로 구축하고 있지만, 선거레코드를 구축하는 업무는 매우 노동 집약적이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대표기관에서 비용이나 시간 절약을 위해 선거DB를 구축하여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개별 도서관이 독자적으로 선거파일을 구축하기 보다는 공유 선거파일을 함께 구축하고 유지함으로써 선거레코드를 생산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분산되고,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공유 선거파일의 모범적인 사례는 미국의회도서관의 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PCC)나 OCLC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내의 선거제어를 위해서는 관련 표준을 제정하여 이미 도서관에서 축적해 온 선거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서관마다 선거제어에 대한 기준이 다른 점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하는 장에서는 선결되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서지작성기관이 주축이 되어 통일된 선거제어 관련 표준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IFLA에서 연구되고 있는 '전

거데이터의 기능상의 요건'(FRAD)에 대한 이해를 통해, FRAD가 RDA와 MARC21에 끼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FRAD와 관련 규칙과의 관계를 정립하였고, 국내 선거제어 관련 목록 규칙과 포맷, 주요 선거DB구축 현황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국내 선거제어 관련 표준을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FRAD 모형의 주요 목적은 선거데이터에 대한 구조화된 참조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FRAD에서도 FRBR과 같이 개체-관계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FRAD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FRAR에서 FRAD로의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목적과 범위 측면에서 FRAD에서는 선거레코드와 선거데이터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레코드에서 선거데이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이를 통해 개념모형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범위 측면에서 FRAR에서 도서관에만 한정되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FRAD에서는 도서관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이 모형의 적용범위를 도서관 관련분야(기록관, 박물관, 권한관리기관 등)로의 확대를 용이하게 하는 기반을 구체화하였다. 이런 범위를 반영하듯 이용자 및 이용자 과업 측면에서도 FRAR에서 도서관에 영역을 한정시켜 이용자 그룹을 세분했지만, FRAD에서는 도서관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이용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둘째, 개체 측면에서 FRAR에서의 개체 '접근점'은 FRAD에서 '제어형 접근점'으로 변경되었고, 제어형 접근점의 정의는 FRAR의 정의를 따르되, FRAR에서는 통제되지 않은 이름과

용어는 접근점의 정의에서 제외하였지만 FRAD에서는 '이 모형의 초점은 전거파일을 통해 통제된 이름과 용어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도서관 맥락에서 접근점과 전거레코드에서 '비제어형 접근점'이라는 개체를 추가하였다. 이런 변경에서 주목할 점은 도서관 분야에서 주로 사용해온 '전거형/이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다 일반적인 용어인 '제어형 접근점'을 사용했다는 점과 전거형과 이형의 '제어형 접근점'뿐만 아니라 '비제어형 접근점'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경은 국제목록원칙 규범(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접근점은 제어 될 수도 제어되지 않을 수도 있다'(ICCP 2008, 5)는 원칙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속성 측면에서 추가된 속성을 보면, 개인에서는 개인과 관련된 날짜, 저작에서는 저작의 주제, 역사, 표현형에서는 기술, 이름에서는 이름의 유형, FRAR의 접근점이 FRAD의 제어형 접근점으로 바뀌면서 관련 속성명이 변경되었다. 관계 측면을 살펴보면,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형제관계, 부모/자식 관계가, 단체간의 관계에서는 계층관계와 선후관계가, 저작간의 관계에서는 대등관계, 파생관계, 기술관계, 딸림자료 관계, 선후관계, 특성공유 관계가 추가 되었다. 또한 개인과 이름 관계에서는 공식적 이름 관계와 기타 이형관계가, 단체와 이름 관계에서는 약어관계, 필명관계, 기타 이형관계가, 저작과 이름 관계에서는 관용이름관계와 기타 이형관계가, 제어형 접근점간의 관계에서는 이름/유사주제 용어 또는 분류관계, 이름/식별기호 관계가 추가 되었다. FRAD는 개체간의 관계유형을 제정하고 강화하였으며, 특히 저작간의 관계에 있어

서 FRAR에서는 FRBR의 저작간의 관계를 그대로 수용하였으나, FRAD에서는 Tillett이 제시한 7가지의 서지적 관계 유형을 적용하였다.

FRAD는 관련표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 살펴본 FRAD와 RDA, MARC21과의 영향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FRAD는 FRBR과 함께 RDA의 기본적인 틀로 활용되어, RDA와 FRAD의 매핑결과를 보면 RDA의 요소는 상당부분 FRAD에서 정의한 속성과 관계와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RDA에 FRAD가 반영된 정도를 보면, FRAD에서 정의된 개체 중 개인, 가족, 단체, 장소, 저작과 표현형의 속성과 관계는 모두 반영되었다. 또한 이름, 식별기호, 제어형, 접근점 규칙의 속성과 관계는 일부 반영되었으며, 규칙, 개념, 대상, 사건의 속성과 관계, 제어형 접근점간의 관계는 제외되었다. 2008년 구성된 RDA/MARC 실무그룹에서는 AACR에 기반한 MARC21가 RDA체제 수용시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실무그룹은 2009년 1월 발표된 문서에서 날짜, 장소, 주소, 언어, 활동, 성, 가족정보 등과 관련해서 추가되어야 필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필드로 '046 - 특별한 연도 부호', '621 - 부가적인 장소', '622 - 주소', '628 - 관련된 언어', '623 - 활동분야', '624 - 소속', '625 - 직업', '626 - 성', '627 - 가족 정보' 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국내 전거제어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거제어를 위한 관련 규칙이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국내 도서관에서는 개별도서관내의 내부규정에 따라 전거레코드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규칙 미비로 인해 전거포맷(KORMARC

(전자통제용) 역시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도서관에서 구축된 전자데이터의 구축건수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이미 구축된 전자레코드에 있어서도 호환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내 전자제어 관련 표준을 위해서는 첫째 기본표목과 통일표제를 부정하는 KCR 4판의 기본원칙, 비제어형 접근점을 추가한 FRAD의 변화, 접근점은 제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국제 목록원칙 규범(안)을 기초로 접근점 제어방식의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둘째 국내 전자제어를 위한 관련 규칙의 적용대상을 현재의 도서관에서 기록관, 박물관, 출판사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국내 전자제어를 위한 관련 규칙 설계시 RDA가 취한 개체-관계 모형과 같은 새로운 접근방식 도입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적합하도록 하고, 표준의 효율성, 신속성, 융통성, 확장성, 적응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고려사항과 함께 국내 전자제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은 미국의회도서관이나 OCLC 등의 사례를 준거로 전자제어 업무를 위한 주관기관, 즉 국가서지작성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한 공동 전자파일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전자제어를 개별 도서관에서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식의 변화, 전문 인력의 확충이나 교육, 비용, 외부 증대에 따른 목록의 전반적 품질 저하 등에 관련된 실질적 문제 등은 검토하지 못하였고, 구체적인 표준을 제시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향후 이 같은 주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룬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기민도. 2006. 국립중앙도서관 전자파일 구축 현황과 계획. 『국가전자파일의 협력적 구축 방안: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 “열린정책 세미나”』. 2006년 6월 26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97-116.
- 김태수. 2004. 전자제어활동의 최근 동향연구. 『지식처리연구』, 5(1/2): 1-32.
- 박선희. 2007. 통합 전자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국립대학도서관보』, 25: 145-161.
- 박지영. 김태수. 2007. 서지관계 유형의 확장: RDA. 『지식처리연구』, 8(1/2): 1-16.
- 박하영. 2004. 『접근 제어 레코드 형식 구축을 위한 XML 스키마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 심경. 2006. 국내 공공도서관의 인명 전자제어의 현황 및 발전 방향.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4): 221-244.
- 안영희, 이성수. 2008. FRAD 개념모형에 관한 연구. 제15회 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정보관리학회』, 41-46.
- 오동근. 2006. 전자레코드를 통한 서지정보 검색의 효율화 방안. 『국가전자파일의 협력적 구축방안: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 “열린

- 정책세미나』. 2006년 6월 26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53-80.
- 윤정옥. 2006. 국가 전자파일의 협력구축을 위한 과제와 방안. 『국가전자파일의 협력적 구축방안: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 『열린정책세미나』. 2006년 6월 26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25-52.
- 이지원. 2005. 『SRU 프로토콜을 이용한 접근점 제어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창수. 2005. 한국목록규칙 4판에 반영된 목록의 유용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3): 137-148.
- Barnhart, Linda. 1996. "Access Control Records: Prospects & Challenges." [cited 2008, 12.9].
 <<http://worldcat.org/arcviewer/1/OC/2003/06/20/0000003520/viewer/file81.html>>.
- IFLA IME ICC Planning Committee. 2008. 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cited 2009.1.5].
 <http://www.ifla.org/VII/s13/icc/imeicc-statement_of_principles-2008.pdf>.
- IFLA UBCIM Working Group on(FRANAR). 2005. 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Records: A Conceptual Model. Draft. [cited 2009.1.7].
 <http://cidoc.ics.forth.gr/docs/frbr_oo/frbrdocs/FRANAR-Conceptual-M-Draft-e.pdf>. 전자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 (안): 개념모형. 범수정 역.
- IFLA Working Group on(FRANAR). 2007. 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 A Conceptual Model. Draft. [cited 2008.12.05].
 <<http://www.ifla.org/VII/d4/FRANAR-ConceptualModel-2ndReview.pdf>>.
- Jensen, Paul and Nathalie Schulz, Meryn Scott. 1998. "The Griffith University Authority Control Project." [cited 2008.11.30].
 <http://www.griffith.edu.au/ins/org/filas/access/monos_serials_papers/content_cataust.html>.
-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2008a.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A Prospectus. [cited 2009. 1.7].
 <<http://www.collectionscanada.gc.ca/jsc/rda.html>>.
-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2008b. RDA Scope and Structure. [cited 2009.1.7].
 <<http://www.collectionscanada.gc.ca/jsc/rda.html>>.
-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2008c. RDA to FRAD mapping [cited 2009.2.5].
 <<http://www.collectionscanada.gc.ca/jsc/rda.html>>.
-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2008d. FRAD to RDA mapping [cited 2009.1.15].
 <<http://www.collectionscanada.gc.ca/jsc/rda.html>>.
-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 RDA. 2008e. RDA/MARC Working Group Update [cited 2009.1.7]. <<http://www.collectionscanada.gc.ca/jsc/rdamarcwg.html>>.
- Taylor, Arlene G. 1999. "Authority Control: Where It's Been and Where It's Going." [cited 2008.12.25]. <<http://www.nelinet.net/edserv/conf/cataloging/cts/1999/taylor.htm>>.
- Tillett, Barbara B. 1987. Bibliographic Relationships: Toward a Conceptual Structure of Bibliographic Information Used in Catalog.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재인용: 김태수, 목록에서의 서지적관계와 연결구조에 대한 연구. 文獻情報學論叢, 李載喆教授 定年紀念 論文集(서울: 九美貿易, 1994), 46.
- Tillett, Barbara B. 1990. "Access Control: A Model for Descriptive, Holding and Control Records." In: Convergence: Proceedings of the Second National Libra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October 2-6, 1988, edited by Michael Gorman, 48-56. Chicago: ALA.
- Tillett, Barbara B. 1995. "21st Century Authority Control: What Is It and How Do We Get There?" In: The Future is Now: Reconciling Change and Continuity in Authority Control. Proceedings of the OCLC Symposium, ALA Annual Conference, June 23, 1995. Dublin, Ohio: OCLC, 1995, 17-21.